

예술 청년들 항해에 ‘돛’을 달아드립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속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예술 창·제작활동을 지원하는 ‘돛단배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돛을 달아줘 유의미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동콜렉티브를 비롯한 보체, 맥거핀, 50gHD, 면밀 등 총 5팀이 선정돼 청년 예술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번 공모 선정단체 중 하나인 보체는 24일 오후 7시 동구 공동 예술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예술인 표류기’ 초연을 앞두고 있다.

‘보체’는 올해 새롭게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 ‘돛단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새내기 예술 청년들의 실력을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삶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인 이 공연은 낯설고 외판 섬에 떨어져 생활하는 표류기처럼 풍요속의 빈곤, 군중 속의 외로움이 가득 찬 세상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노래한다.

배우들이 드러내는 익살스러운 숨겨진 예술인들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예술가의 삶을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보체(박찬민, 박원오)는 “광주 내에서 내수 제작과 소비가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시장을 만드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은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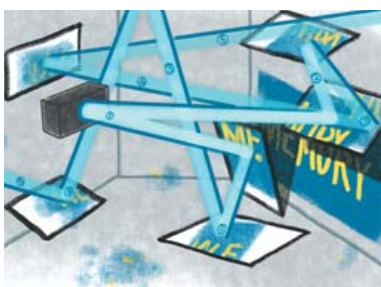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좌석수를 40석으로 제한한다.

또 다른 선정단체인 ‘장동콜렉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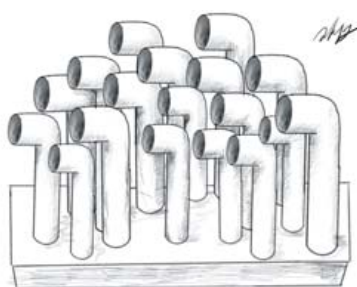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돛단배 프로젝트’ 선정단체 결과물 선행보체 창작뮤지컬, 장동콜렉티브 공공미술 미디어아트展



창작뮤지컬 ‘예술인 표류기’ 포스터.



장동콜렉티브 김은경·박다혜 작
‘PP(production point)’



장동콜렉티브 정덕용 작
‘누군가를 위한 변주곡’

브’는 29일까지 반도전자상가 건물 2층 (동구 독립로 264번길 25) 유희공간을 활용해 ‘믿음∞여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주제로 미디어아트 전시를 준비했다. 공공미술로서 전자상가의 재생을 엿볼 수 있

다.

장동콜렉티브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은경, 박다혜, 이뿌리, 정덕용 등 4명의 청년 작가들이 함께 꾸린 독립규레이터 팀으로 사회·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

한 예술 실천적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여름부터 대인동에 위치한 반도상가 일대를 조사해 낙후된 지역으로 사라져 가는 도심 속 공간을 예술 작품을 통해 기록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상인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자상가와 전자 거리 일대 역사와 의미를 정리해 장소성을 살린 예술작품으로 풀어냈다.

장동콜렉티브는 “단발성 전시로 끝나지 않고 반도 전자상가 내 유희공간들을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상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동콜렉티브의 인스타그램 (@jangdong_collect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거핀, 50gHD, 면밀 등 세 팀의 성과 결과물도 올해 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예술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맥거핀’은 다음달 초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 전시관에서 전시, 독립영화팀 ‘50gHD’는 배우 섭외완료로 12월초에 촬영이 들어가서 결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이다.

‘면밀’은 5-18아카이브 서적 출판팀으로 현재 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다음달 초 책 출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문화생태계 조성사업은 광주 청년문화 실태조사,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등 시발점으로 2018년 ‘전국 문화해적대결집’, 2019년 ‘노스한 연대실현 Action B’에 이어 올해에는 ‘돛단배 프로젝트’로 이어오고 있다. /김다이 기자



연극 ‘애꾸눈광대-그날의 약속’ 공연 장면.

5·18 40주년 연극 ‘그날의 약속’

‘애꾸눈 광대’ 올 마지막 무대…26일까지 광주아트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각색한 ‘애꾸눈 광대-그날의 약속’ 연극이 26일까지 광주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새)나라사랑예술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약 70분간 진행되며, 80년 5월 신군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5월17일부터 상무중정작전(진압작전)을 펼친 27일까지 열흘간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수차례 각색을 통해 변화된 올해의 ‘애꾸눈 광대-그날의 약속’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옛 도청 지하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아 출신 시민군의 이야기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80년 광주항쟁 때 도청을 지키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시민군 김영철 선생의 막내딸 김연우씨가 안무와 무용수를 맡아 의미를 더한다.

연극은 영상과 노래, 춤이 결합돼 5월 그날의 상흔을 웃음과 희망으로 전한다.

극본 및 총감독은 ‘애꾸눈 광대’ 이세상씨, 각색은 문광수(전 남원 연극협회장)씨, 연출은 이형원(전 광주 소극장 협회장)씨가 맡았다.

출연진은 러시아 유학파 출신인 한중곤(이종구 역), 김안순(어머니 역), 정이형(문운동 역), 윤석(박선조 역), 주현지(하준택 역), 함승우(신재수 역), 유예린(나일순 역), 김해수(박종팔 역) 등이 출연한다.

앞서 5월 공연에서는 당시 공수부대 출신 인사들과 항쟁 지도부가 연극을 관람한 후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가져 관객을 물결하게 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50명을 초대한다. 문의062-227-7440. /김다이 기자

‘피카소 읽어드립니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26일까지 선착순 200명 모집

광주시립미술관이 제3기 토요문화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제3강을 28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올해 마지막 강의는 ‘파블로 피카소-미술역사상 가장 나쁜 남자,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재’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과 2020년 마지막으로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은 우리에게 잘 알고 친숙한 서양미술의 거장 피카소에 관한 강의다.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명화를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재미있게 감상하는 자리로 기대된다.

앞서 9월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10월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함께 알아본 바 있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강사(아트 스토리 105대표)는 로마와 파리 등 주요 미술관 현지 가이드를 거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바티칸 박물관전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티스토티 105 대표이자 미술사전문 강사로 활약 중이다.

접수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200명 접수를 받는다. /김다이 기자

ACC 개관 5주년 기념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25일 국제회의실…유튜브 생중계

개관 5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새)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1시45분 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자 50명에 한해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하되 전산방(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 ACC 유튜브 생중

계를 통해서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사전참석 등록은 ACC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인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토론회 좌장으로 강신겸 전남대 교수(문화전문대학원)가 ‘문화전당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새로

운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신의 경희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가 ‘문화전당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향’ 주제로 발제한다.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장 직무대리는 “개관 5년차를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ACC의 5개년 콘텐츠 확충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히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역 바로!
운천호수공원 바로!
상무지구 바로!

1억에 3채!!!

랜드마크란, 바로 이런 것!

상무 모아 미래도레이크

상무지구를 대표할 더블 조망권과 초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상무 모아 미래도레이크

퍼펙트 교통
퍼스트 자연
베스트 수유
임팩트 규모

도보 3분 거리에 운천역이 있으며, 상무대로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통하는 패스 교통망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운천저수지와 인근의 5·18기념공원, 백석산, 평화공원 등이 있는 늘 푸른 생활 광주의 행정/업무/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손꼽히는 상무지구의 풍부한 임대수요와 투자가치 높이 25층, 오피스텔 696실, 상가를 갖춘 대단지 오피스텔로 상무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아파트 총 696실 22, 24, 49, 52 Type 문의 전화 062) 415-9144

사모 KAIT 한국자산신탁 사모 청자홀딩스 사모 1주모아종합건설 남광건설 경도산업